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기는 이들의 승리

7/27 월

단 1:3-4,7

3 그러고 나서 왕은 내시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왕가의 씨와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되

4 흠이 없고 외모가 준수하며 온갖 지혜에 대한 통찰력과 지식에 대한 명철함 그리고 생각에 대한 간파력이 엿보이는 소년들로서, 왕궁에 설 역량이 있는 이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왕은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그에게 말하였다.

7 내시장은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다.

대하 36:7

7 또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와 집 기물들 중 일부를 바빌론으로 가져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신전에 두었다.

스 5:15

15 그러면서 고레스왕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이시오. 하나님의 집을 원래 자리에 재건하시오.’

사 22:23-24

23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나는 그를 박으리니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을 위해 영광의 보좌가 되리라.

24 그러면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곧 자식과 자손, 대접에서 온갖 향아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작은 그릇이 그의 위에 걸릴 것이다.

딤후 2:20-22

20 그렇지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귀하게 되고 어떤 것은 천하게 됩니다.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해지고, 주인에게 쓸모 있게 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될 것입니다.

22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7/28 화

단 1:8,16

8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가장 좋은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 달라고 내시장에게 요청하였다.

16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에게 할당된 가장 좋은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할 포도주를 물리고, 그들에게 채소를 주었다.

고전 10:19-21

19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 앞에 바친 희생 제물이 무엇이라도 된다거나, 혹은 우상이 무엇이라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20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21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서 또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 없으며, 주님의 상에 참여하고서 또 귀신들의 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창 2:9

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였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계 2:7, 17

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1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계 3:20

20 보아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렐 15:16

16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주님의 말씀이 제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7/29 수**단 3:17-18, 23-25**

17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왕이시여, 저희가 섬기는 저희 하나님은 이글거리는 불가마에서 저희를 건져 내실 수 있으시니, 그분께서 저희를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실 것입니다.

18 그러나 왕이시여! 그분께서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 경배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23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묶인 채 이글거리는 불가마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24 그때 느부갓네살왕이 깜짝 놀라 황급히 일어나서 그의 조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않았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분명 그렇습니다.”

25 왕이 말하였다. “보시오, 나에게는 네 사람이 풀려나 불 한가운데를 걸어 다니는 것이 보ियो. 그런데도 그들은 해를 입지 않고 있소. 게다가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 같소.”

마 4:9-10

9 “그대가 옆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10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성경에 ‘주 그대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16:24

24 그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히 4:15-16

15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느낌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7/30 목**단 4:34-35, 37**

34 “그날들이 찼을 때,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자,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다. 나는 가장 높으신 분을 찬양하고 영존하시는 분을 찬송하며 그분께 경의를 표하였다.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35 땅의 모든 주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은 하늘의 군대에서나 땅의 주민들 가운데서나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니 그분의 손을 막거나 그분께 ‘무얼 하시는 겁니까?’ 할 이가 아무도 없다.

37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들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께 경의를 포함은, 그분의 모든 일이 진실하고 그분의 길들이 정의롭기 때문이요, 그분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이를 낮추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롬 8:28-29

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이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골 1:18

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후 10:13, 18

13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고, 분량을 재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여러분에게 간 것도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입니다.

18 왜냐하면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렘 9:23-24

23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센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사람은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마라.

24 자랑하는 사람은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그가 통찰력이 있어 나를 아는 것과 내가 땅에서 자애와 정의와 의를 집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7/31 금**단 5:22-23**

22 그런데 그 후손이신 벨사살왕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낮추시기는커녕

23 오히려 하늘들의 주님이신 분을 거슬러 자신을 높이셨고, 하나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하시어 왕과 왕의 대신들과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셨으며, 은과 금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곧 아무것도 보거나 듣거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왕의 호흡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왕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존경하지 않으셨습니다.

벤전 2:4-9 (4-6)

4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 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5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6 왜냐하면 성경에 “보아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7 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된 돌’이시며,

8 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이십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 또한 정해진 일입니다.

9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 28:16

16 그러기에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참으로 내가 시온에 기초로서 한 돌, 시험받은 돌이자 견고한 기초로 세워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놓나니 이를 믿는 사람은 다급하지 않으리라.

8/1 토**단 6:10-11, 26-27**

10 다니엘은 그 금령에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으로 가서(그의 위층 방 창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 전에 늘 하던 대로 날마다 세 번 자신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11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26 내가 칙령을 내리니, 내 왕국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할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왕국이 멸망하지 않으며 그분의 통치가 무궁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27 그분은 구해 주시고 건져 내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어 다니엘을 사자들의 기세에서 구해 내신 분이시로다.”

왕상 8:48-49

48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49 주님의 거처인 하늘들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엡 4:13-16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8/2 주일**단 1:17-20**

17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모든 학문과 지혜에 지식과 통찰력을 주셨고,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꿈을 이해하게 되었다.

18 소년들을 데려오라고 왕이 말한 기한이 차자, 내시장은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다.

19 왕이 그들과 이야기해 보니, 그 모든 이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이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왕의 면전에 서게 되었다.

20 왕은 각종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그들에게 물어보고서, 그들이 그의 온 영토에 있는 모든 마술사와 법술사보다 열 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 3:12

12 그런데 왕이시여!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맡도록 임명하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하는 유대인들인 그 사람들은 왕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슥 3:9

9 여기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아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겠다. 만군의 여호와와 선포이다.

슥 4:7, 9-10

7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꼭대기 돌을 내어놓을 때에, 사람들은 ‘은혜, 은혜가 그 돌에 있다!’라고 외칠 것이다.”

9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이 일을 끝마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음을 알게 될 것이다.

10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이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추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일곱이 기뻐하리니, 이 일곱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와 눈이다.”

Hymn: #1268

Further Reading: *Life-study of Genesis, msg. 28*

Churchwide Truth Pursuit of Genesis**Level 1—Sequential Life-study Reading**

Completed for Genesis. Review prior materials on the church website.

Level 2—Topical Study

Completed for Genesis. Review prior materials on the church website.